

## 현대일본어경어의 사용

김 선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말은 탁하는것이 다르고 특하는것이 다른것만큼 일군들은 대상과 그 수준에 맞게 말을 레절있게, 문화적으로 하는데 습관되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대하는데서도 점잖게 말하여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2권 285페이지)

현시기 언어생활에서 문화성을 높이고 언어레절을 잘 지키는것은 중요한 문제로 된다. 그것은 언어레절이 그 사람의 사상과 품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기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일본어경어사용에서 나타나는 편향과 경어사용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일본어는 다른 언어에 비하여 경어체계가 발달한 반면에 그 표현수단이 매우 복잡한 체계를 이루고있다.

조선어에서는 존경의 뜻을 가진 단어들과 존경토 《시》에 의하여 단순하면서도 명백하게 존경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있다. 이에 비해볼 때 일본어는 경어로서 존경어, 정중어, 겸손어, 미화어의 4가지로 구별하고있으며 그를 나타내는 수단들도 앞붙이, 조동사, 존경동사, 존경을 나타내는 관용형구 등 복잡한 체계를 이루고있다.

최근시기 일본어입말에서는 물론 글말에서도 경어가 쓰이는것이 극히 드문 일로 되고있으며 쓰이는 경우가 있다면 왕실과 관련한 기사라든가 다른 나라 국왕과 관련된 기사들에서만 볼수 있다.

따라서 오늘 일본사람들속에서 경어는 관심밖에 놓여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경어를 경시하거나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되고있다.

현대일본어경어사용에서 나타나고있는 편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언어생활에서 존경어와 겸손어의 차이를 잘 모르는데로부터 언어정황에 맞지 않게 뒤섞어쓰는것이다.

례: いらっしゃる	⇒ 参る
召し上がる	⇒ いただく
あそばす, なさる	⇒ いたす
くださる	⇒ いただく
思う	⇒ 存ずる
ご覧になる	⇒ 拝見する

일본어경어가 짝이지 못하고 복잡한것은 사실이지만 실지 언어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れる(られる)》, 《お~になる》, 《ご~になる》, 《~ていただく》와 같은 몇개의 경어사용법만 잘 알아도 존경의 의미를 나타낼수 있다.

그런데 실지 일본사람들의 언어생활에서는 경어사용을 매우 어려워하고있으며 사용에서 오류들이 많이 나타나고있다.

례: 社長, どこへ参りますか。 × (いらっしゃいますか)

部長が申したようにしなさい。 × (おっしゃったように)

わたし10時に帰っていたきます。 × (帰らせてもらいます)

둘째로, 정중의 의미를 나타내는 《あげる》를 대상과 경우에 맞지 않게 람용하고있는 것이다.

례: 赤ちゃんにミルクを上げてよろしいでしょうか。

(애기에게 우유를 올려도 일없을가요.)

犬にご飯を上げなさい。(개에게 밥을 올리시오.)

일본어에서 정중의 의미를 나타내는 《あげる》는 여성들에게서 많이 쓰이고있으며 따라서 여성들의 언어사용에서 오유가 많이 나타나고있다.

원래 《あげる》는 《くださる》의 반대말로서 《たてまつる》에서 생겨난 단어이다. 따라서 옛날에는 이 단어가 《손우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드리다, 올리다》는 의미로 쓰이였으며 손아래사람에게는 보통 《やる》를 써왔다. 옛날에는 《この太刀をつかわす》로 써왔는데 이것은 력사소설에서 흔히 찾아볼수 있으며 《遣わす》가 《遣る》로 변했다고 보고있다.

이로부터 갓난아이나 손아래사람 더우기는 개나 고양이에게 《あげる》를 쓰는것은 맞지 않는다.

현시기 정중어람용현상이 많이 나타나는것은 이른바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는 관점으로부터 손우, 손아래의 구별의식이 희미해지고 《やる》를 손아래사람에 대한 차별이나 깔보는 말처럼 생각하는데 있다.

정중어 《あげる》의 람용은 특히 신문, 라디오, 텔레비존방송과 같은 언론기관에 근무하는 방송원이나 해설자, 강사들속에서도 우습하게 나타나고있다.

례: 毎日本水を上げることを忘れ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

(매일 (나무에)물을 드리는것을 잊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셋째로, 정중어사용에서 자기 집식구나 집일과 관련되는것에까지 고려없이 사용하는 것이다.

례: 私はまだ, 里のお母さんにお年玉をいただいておりますの。

(もらって)

(나는 아직 고향의 어머니로부터 새해선물을 받지 못했어요.)

지난 시기는 물론 현재도 일본어에서는 자기 식구나 가까운 친척들에 대하여 경어를 사용하는것은 실례로 된다는 관념이 남아있으며 부모들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お父さん, お母さん》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위의 문장에서와 같이 《いただく》를 쓴것은 이 단어가 《もらう》보다 정중한 말이라고 여긴데로부터 오는 오유라고 볼수 있다.

넷째로, 남성과 여성에게 고유하게 쓰던 언어구별이 없어지면서 여성에게서만 쓰이던 미화어가 성별에 차이없이 람용되는것이다.

이전에는 여성들이 미화어를 써왔으며 남자들은 쓰지 않는것으로 되어있던것이 현대 일본어에서는 남녀구별없이 람용되고 그 의미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있다.

례: 今日はおクレヨンでお絵かきをしましょうね。

(오늘은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자요.)

おテレビを見てお勉強しましょうね。(텔레비존을 보고 공부를 하자요.)

お米, おみそ, お菓子, お酒全部買ったよ。(쌀, 된장, 과자, 술 모두 샀어요.)

다섯째로, 사람에 대한 호칭에서 종전의 존칭, 경칭들이 사라지는 경향을 보이는것이다.

실례로 《女中》라는 어휘도 여성에 대한 존칭어였는데 점차 의미가 변하여 《下女(하녀), はしため(하녀)》와 동의어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던것이 현대에 이르러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할데 대한 여론이 환기되면서 《家事手伝い(가사를 돕는 사람), お手伝いさん(도와주는 사람)》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옛날에는 여성들에 대한 존칭은 《奥方, 奥様, 御寮人, ご新造, 内儀》만이 쓰이고 나머지는 점차 의미가 달라져 존칭으로 쓰이지 않게 되었다.

우와 같이 호칭의 의미가 달라진것은 반드시 여성들의 호칭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니다.

여섯째로, 일본의 젊은 사람들의 경어사용에서 종래의 사회적지위, 신분관계, 나이관계를 절대화하던 전통관념에서 벗어나 자기와 친밀한 사이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인간관계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는것이다.

일본방송협회가 진행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를 분석해보면 젊은 사람들속에서는 웃사람이라고 하여 무턱대고 경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다는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문화청의 여론조사결과를 분석한데 의하면 최근 일본의 젊은 사람들속에서 한방향적으로 경어를 사용할수 없다는 인식이 강해졌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다시말하여 현대에 와서 일본어경어가 쌍방향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고있으며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아가며 사용하려는 경향이 많은 사람들속에서 인정되고있다.

일본어경어의 사용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첫째로, 상대방의 사회적지위와 나이관계를 잘 고려하여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예: 電話で話せばよかったものをわざわざお越しくださって申し訳ありません。

(전화로 이야기하면 될걸 우정 걸음을 하게 하여서 면목이 없습니다.)

둘째로, 공식적인 회의, 연설, 축사, 편지 등에서는 존경어보다도 《デス, マス》체를 사용하여 정중성을 나타내야 한다.

예: 私はまず金正日著作研究全国討論会がこの大阪の地でこのように盛大に開催されたことに対して、心からお喜び申し上げます。

(저는 우선 김정일 저작연구전국토론회가 여기 오사카에서 이처럼 성대하게 개최된 데 대하여 충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셋째로, 친밀한 경우라고 하여도 제 3자가 개입하는 경우 그와 상대방과의 사회적관계나 인간관계를 고려하여 경어를 사용하는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넷째로, 대외관계에서는 존경어와 겸손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예: ご多忙中をお会いいただいたうえに、いろいろ有益なお話をお伺いできまし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만나주신데다가 여러가지 유익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다섯째로, 최근 일본어에서 비문화적인 말들을 에두르는 말로 바꾸어쓰는 흐름에 맞게 무례하거나 상스러운 말, 비속어들을 피하고 고상한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

우선 일본어의 속되고 비속한 말, 불쾌감을 주는 말들을 쓰지 말아야 한다.

례: - 속된말

イカサマ(협잡), ど真ん中(한복판), インチキ(가짜), ハッター(허세, 허풍), 尻尾をつかむ(꼬리를 붙잡다), やけくそ(자포자기), タンマリ(잔뜩, 실컷), チャッカリ(깜찍스레, 능청맞게)

- 야유나 경멸을 나타내는 말

アキメクラ(눈뜯 소경), つんぼ(귀머거리), 土左衛門(물에 빠져 죽은 사람), カタチンバ(절름발이), 小僧(애새끼), ビッコ(잘룩이), さいづち頭(장구머리), めくら(소경), ちか目(근시, 얕은 식견), パンパン(매춘부), メッカチ(애꾸), 女工(녀공), 毛唐(서양놈), 合いの子(혼혈아)

- 불쾌감을 주는 말

穴埋め(구멍메꾸기), なで切り(닥치는대로 뺨), のたうちまわる(몸부림치며 모대기다), のしあがる(지위가 경충 오르다), 袋たたき(뭇매질함), 毛色の変わった(색다른), 詰め腹(강요에 못이겨 배를 가름), 首切り(목을 자름), 手玉に取る(쥐락펴락하다), デカデカ(큼직하게), しらみつぶし(이를 잡듯 살살이)

또한 신체장애, 직업, 인종, 국가, 생활구역 등과 관련한 일본어의 비속어들을 고상한 말로 바꾸어 써야 한다.

례: - 신체장애와 관련한 단어

めくら(소경)→盲人(맹인), 目が見えない人(시력장애자), おし, つんぼ(귀머거리) → ろうあ者(ろう아), どもり(말더듬이) → 言語障害者(언어장애자), イザリ(앓은뱅이) → 足の不自由な人(발이 불편한 사람)

- 직업과 관련한 단어

屠殺(도살) → 食肉処理(식육처리), 掃除夫(청소부) → 清掃作業員(청소작업원), バタ屋(넙마주이) → 廃品回収業(폐품회수업), 百姓(농군) → 農民(농민), 人夫(인부) → 労働者(로동자), 小使い(심부름꾼) → 用務員(용무원), モシモシ嬢(여보시오 양) → 交換手(교환수)

- 인종, 국가, 생활구역과 관련한 단어

シナ人(지나인) → 中国人(중국인), 黒んぼ(검둥이) → 黒人(흑인), 後進国(후진국) → 発展途上国(발전도상나라)

우리는 현대일본어경어사용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외국어교육 실천에 능동적으로 활용해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문명강국건설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할것이다.